종립학교 불교어머니회 '신행열기'

명성여고 장학금 지급 · 교양강좌
해 동 중 자원봉사 · 경전강독
금 정 중 사찰순례 · 꽃꽂이 수업

올해 고3이 되는 딸을 둔 김용희보살은 마음이 설렌다. 딸아이가 다니는 명성여고에 법회를 보러 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총회장까지 맡아 책임이 무겁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행사 지원 등을 통해 부모 자식간의 유대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종립학교 어머니 불자회 회원들이다. 종립학교 어머니 불자회 회원들은 학생들의 신행활동과 학교행사 등을 뒷받침하면서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체적인 자원봉사, 교리공부 등 불심 다지기에도 열심이다.

명성여고 불자어머니들의 모임 수심회(회장 김용희)는 올해 1백24명의 회원이 가입 등록을 하는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수심회는 봄·가을엔 건봉사 보문사 등지에서 야외법회를 갖고 11월에는 수능고득점 기원법회도 봉행한다. 5월2일 열릴 교내 탑돌이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같이 탑돌이도 하고 떡도 돌릴 예정이다. 연등만들기와 염주만들어 보시하기도 봉축행사 가운데 하나. 지난해에는 학교측에서 개설한 제1회 불교기초교리강좌를 수강해 20명이 수료증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끝나는 5월중순부터는 제2회 불교기초교리강좌, 9월중순부터는 제3회 불교기초교리강좌가 개설된다. 지난해 교리강좌와 달리 한국불교, 중국불교, 경전개론을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수심회는 3월25일 올해 첫 법회에서 회장선임, 98년도 장학금 수여, 관음보살성상건립 기금 마련 등을 확정했다. 이 학교 김형중교법사는 "올해는 총회장 외에 학년별 회장을 선임하는등 수심회의 체제정비에도 힘썼다"고 말했다.

명성여고 수심회 외에도 불교종립학교 불교어머니회 회원들이 사찰이 아닌 학교 법당에 모여 불심을 다지고 있다.

명성여중 연화어머니회는 4월13일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화어머니회는 매달 갖는 법회와 연 2회 정도 실시하는 수련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동대부중 불교어머니회(회장 김윤자)는 한달에 한 번 동대부중 법당에 모여 법회를 가진다. 총 인원 1백50여명에 달하는 불교어머니회는 교내 봉사활동, 봉축행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친다. 3년째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연꽃불교어머니학교로 기초교리공부도 하고 있다.

경전공부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법회를 갖는 부산 해동중학교 해동관음회(회장 이동화). 해동관음회 회원들은 일반 사찰법회와 달라 불교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요즘은 〈아함경〉 공부에 여념이 없다. 사찰순례 뿐만 아니라 학교행사에서 봉사활동도 열심인 모임이다.

부산 금정중학교 금정반야불자회(회장 홍영미)는 120여명의 회원이 한달에 한번 법회를 연다. 가끔 야외법회도 마련한다. 전통사찰을 찾아 떠나는 야외법회 때에는 회원들이 더욱 신심을 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문화교양강좌의 하나로 꽃꽂이 등을 신설 어머니들의 불심을 더욱 돈독히 다질 예정이다.

이렇게 정기법회, 학교행사 보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어머니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교내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하나 더 싸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 ◇종립학교불교어머니회는 자신들의 신행활동과 함께 학교행사 때에도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명성여고 수심회의 법회현장.

건강 365일 〈18〉 향부자(香附子)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만물이 생기를 찾아 생동하는 봄이다. 향기 그윽한 매화 빛꽃 등 봄을 알리는 꽃들도 활짝 피었다. 춘하추동이란 자연의 현상은 오늘도 쉼없이 돌아가고 내일도 쉼없이 변화할것이다. 봄은 왔건만 IMF 한파로 인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환율불안 등등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나며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을 조이고 있다.

옛속담에 문지방은 좀먹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나타난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가두어 두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진다. 심장에선 피를 순환시키며 폐장에선 기를 순환시킨다. 심장과 폐란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과 같다. 엔진이 돌아가야 바퀴도 돌아가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도 희로애락이란 감정이 적절하게 돌아가야 병이 없다. 매일 슬퍼하고만 있어보라. 몸이 온전할 수가 없다. 또 매일 즐겁다고 웃어만 보라. 즐지에 실성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심장에서 혈액순환을 시키지 못하면 혈관 속에 피가 고여 탁해진다.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발병한다. 폐장에서 기를 순환시키지 못하면 식도염 위염이 생기는데 특히 여성들은 자궁수종, 자궁근종, 자궁암까지로도 발전된다.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된 사람을 보았다.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기(氣)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인 것이다. 기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에너지이다.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이나 단전호흡 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방편에 불과하다. 단전호흡이란 것도 기를 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기가 막혀서 오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이 향부자(香附子)이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육체적인 병을 다스리는 한방의 묘약이다.

고혈압등 氣막혀 생기는 병 치료 감초와 함께 달여 하루 2번 복용

복용법 향부자 8g과 감초 2g을 차처럼 달여서 하루 2번 마신다.

"불교 이념정립이 신행체계화 지름길"

유동호교법사 세미나서 지적

"신행체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불교사상의 체계적인 이념 정립이 필요하다."

11일 열린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 창립 29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신도교육의 해에 따른 신행 체계화의 방안'을 발표한 유동호교법사(광동여고)는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기복적 신행으로 인한 승·속의 괴리 △대·소승의 차별 △선·교의 분리 △타종교 및 과학사상의 도전 등을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행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화엄십지설 활용 한글성전 편찬해야

유동호교법사는 바람직한 신행 체계화 방안으로 △사상적 이념의 정립-화엄 십지설을 깨달음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불교의 근본 이념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 설정, 활용 △정기법회 교양대학 외에도 불자들의 정서적 바탕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신행체계화의 핵심은 불교적 가치관의 내면화·사회화에 있고, 그 성공여부는 신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

불교의 궁극 목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한글성전의 편찬과 그에 입각한 이념체계의 정립이 선결 과제라고 전제한 유동호교법사는 이를 바탕으로 불자의 교육이나 포교 나아가 종단 혁신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극복 여성이 적극 나서야"

여불련 '종교와 여성' 세미나서 이인자교수 주장

IMF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여성들에게 있다는 주장이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10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종교의 여성과 사회적 기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인자교수(경기대)는 '올바른 불교관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가정 경제권이 여성들에게 있고 자녀 교육도 어머니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여성불자들이 힘을 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각 종교에 나타난 여성관'을 발표한 김종찬논설위원(불교신문사)은 기독교와 불교의 여성관을 소개하면서 종교의 여성관이 종교 본연의 모습보다는 교단주의 발달과 남성의 역사라는 인식의 한계에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김논설위원은 불교의 여성관에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 다섯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여인 5장설과 3종설, 8경법 등이 대표적인 여성 차별론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여성차별론은 이후 〈유마경〉에 나오는 여인즉신성불을 이룬 천녀이야기에서 반박되고 결국 공사상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독교의 경우 기존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고하는 마리아'를 우대해 왔으나 최근 '실천하는 마르다'를 능동적이며 자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실천 자율 결의 동대부고, 폭력추방등

동대부고(교장 김원식)는 13일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한 윤리실천 자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서 동대부고 학생들은 △폭력추방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 △근검절약 생활화에 앞장 △거짓말 추방 △중독성 물질 섭취 및 저질 문화 추방 등을 다짐했다. 또 효도를 하자, 흡연·음주를 하지말자 등 '98 학생윤리실천자율덕목 14항을 선정 발표했다.

단 신

실직자 자녀 쉼터제공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IMF로 실직하거나 생계가 어려워 갈 곳이 없어진 중·고등학생 5명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032)761-4855

광동여고 '연꽃큰잔치'

광동여자고등학교(교장 김양수)는 27일부터 5월3일까지 부처님 오신날 기념 '연꽃들의 큰 잔치'를 마련한다.

'연꽃의 마음, 하나되는 광동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27일 연등만들기 대회 및 전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30일 우리말 반야심경 암송대회, 5월1일 찬불가 합창대회 1·2일 알뜰장터, 3일 합동법요식 및 제등행렬 등을 준비한다.

명성여중 농촌체험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15~17일 2박3일간 명성여중 교사 4명과 학생 11명을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서도중학교로 보내 모내기, 갯벌 조개잡이 등의 농촌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송광사 여름수련참가기

3박4일 간의 여름방학 동안 경험한 중고생들의 단기 출가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소감을 고스란히 담은 96-97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동참기 〈짧은 출가, 큰 깨달음〉(불일출판사)이 나왔다. 〈짧은 출가…〉은 96년, 97년 2년동안 송광사 여름수련법회에 참가한 중고생 외에도 일반인 22명의 체험기를 싣고 있다.

해동고 개교기념연주회

재단법인 영축학원(이사장 성파스님)의 해동교등학교는 개교 62주년을 맞아 개교기념 연주회를 열었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대둔사 '두륜산에…' 실상사 '햇살을…' 문집 2권

새싹불자 순수한 감성 담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푸른 감성을 담아낸 문집 2권이 잇달아 출간돼 화제다.

대둔사(주지 천운스님)가 펴낸 〈두륜산에 심은 뜻은〉과 실상사(주지 도법스님)에서 발간한 〈햇살을 닮고 싶은 나에게〉의 2권이 바로 그것. 두 권 모두 초 중 고등학생들이 그려내는 순수한 감성의 세계가 이채롭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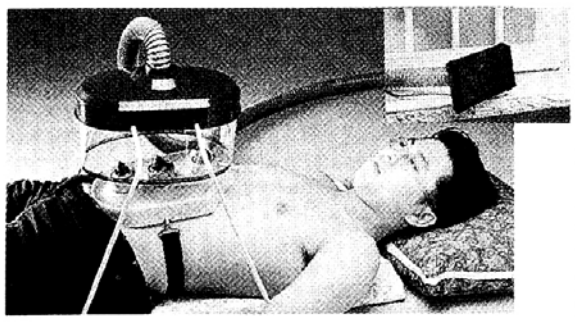
〈두륜산에 심은 뜻은〉은 대둔사가 서산대사 탄신기념으로 개최한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글모음집이다. 1995년에 시작된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의 3회에 걸친 주옥같은 수상작들을 만날 수 있다. 나라사랑, 서산대사, 봄, 산사 등을 주제로 각기 다양한 개성이 골고루 펼쳐져 있는 이 책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따사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다.

〈햇살을 닮고 싶은 나에게〉는 실상사가 지리산 인근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회 글쓰기한마당 수상작과 독후감 등을 담은 청소년 문집이다. 시 산문 독후감 등 70여편의 글이 실려 있다.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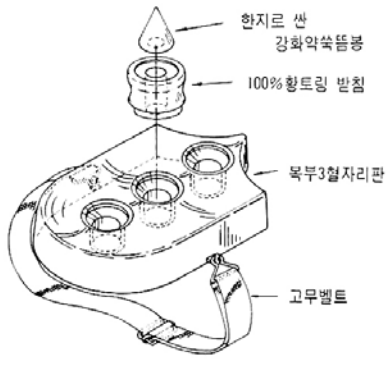
현대인의 건강長壽 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3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